

사그락~사그락~ 단풍 숲길 걸어요

전남도 가을철 걷고 싶은 숲길' 추천 곡성 대항강 둘레길 등 5곳 선정 화순 모후산 유마사 단풍숲길 '대상'

전남도가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단풍을 즐길 가을철 걷고 싶은 숲길 5곳을 선정했다.

'가을철 걷고 싶은 숲길'을 주제로 사군 공모를 추진, 경관·산림·등산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 단풍·향기 등 가을철 정취가 묻어나는 아름다운 숲길을 확정했다.

대상에는 화순 모후산 유마사 단풍 숲길에 영예를 안았고, 영암 백룡산 숲길과 곡성 대항강 둘레길, 각각 최우수 숲길에, 장성 편백나무 숲 트레킹길과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사색의 숲길에 우수 숲길에 이름을 올렸다.

유마사 단풍 숲길 4km는 섬진 7지맥의 한 봉우리로 백야산의 산줄기를 타고 내려와 동북천을 앞에 두고 멈춰 선 곳이다. 주암댐의 담수와 함께 삼면이 푸른 물줄기로 둘러싸여 멀리 무등산, 조계산, 백야산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유마사 단풍 숲길은 총 4개의 코스로 구성, 등산객 기호에 따라 코스를 선택해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영암 백룡산 숲길 6.1km와 곡성 대항강 둘레길 6km는 산림경관을 위해 조성한 임도를 활용, 완만한 경사로 이뤄졌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가벼운 자립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임도 주변에는 편백, 단풍 나무를 심어 가을이면 단풍 터널을 지나며 색다른 경관을 볼 수 있다.

장성 편백나무 트레킹 길은 17.3km로 길다. 해발 400m가 넘어 발 아래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관, 편백향이 내뿜는 피톤치드, 단풍길 등 가을철 낭만이 흐른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사색의 숲길 1km 구간은 난대 상록활엽수림과 단풍나무가 어우러져 색다른 경관을 연출한다. 치유의 숲이 조성돼 연령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계절별로 5개소씩 걷고 싶은 숲길 20개소를 발굴해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등 전남을 대표하는 명품숲길로 조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속해서 명품 숲길을 홍보하고, 올해



화순 모후산 유마사 단풍숲길

도 75억원의 예산을 들여 등산로, 둘레길 등 숲길(4223km)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산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잘 알려지지 않

은 매력적인 숲길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누구나 걷고 싶은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기자 노트

대전은 되고, 광주는 왜 안되나



김민석
경제부 기자

최근 광주신세계 확장과 어등산 개발이 담보상태를 보이는 상황이 안타깝다. 당장 제조업을 유지해 공장을 돌리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유명 대학병원을 유치해 의료산업을 대폭 확장하기 어렵다면 대형 유통업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대통령의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기대를 부풀렸지만 현실은 지난 2015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온 광주신세계 확장 사업이 민원에 발목 잡혔고, 신세계그룹 내부에서 광주시의 불안정한 투자 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지난 2015년 광주에 특급호텔을 건립하려 했지만 민원과 정치권에 발목 잡혀 결국 대전으로 투자 방향을 돌렸고, 광주에 투자될 5596억원은 대전으로 고스란히 투자됐다. 대전신세계의 직·간접 고용인원은 4200여 명으로, 대전·세종·충남지역 고용 창출의 핵심 사업장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랜드마크 격인 대전신세계 '아트&사이언스'가 들어서 전국의 관광명소가 떠올랐고, 방문객 또한 60% 이상이 타 지역민들이다. 사실상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셈이다.

만약, 2015년에 광주에 신세계의 투자를 유치했다면, 8년이 지난 지금 광주의 고용시장과 관광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광주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대전은 대전신세계 이외에도 창고형 쇼핑몰 코스트코, 전남에서 한 차례 좌절된 바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프

리미엄 아울렛을 속속 유치했다. 물론 반발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대전시가 적극 나서 이해 당사자들과 합의점을 찾았고, 유치에 성공했다.

최근 고공리와 원재자값 상승, 비대면 유통구조가 주류를 이루며 '유통 공룡'들이 오프라인 점포들을 철수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게는 수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광주시가 민원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이번에도 지난 2015년처럼 민원에 발목잡혀 광주신세계의 확장과 어등산 관광단지까지 좌초된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광주에 투자할 수 있을까 의문시된다.

다행히 이날 민원을 제기했던 금호월드측에서 광주신세계에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동안 반대했던 도로 폐지를 전제로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해 당사자들인 신세계와 금호월드 측이 이제 도로 폐지를 전제로 협상에 들어감에 따라 공동심의위원회가 꾸려져 그동안 지체된 행정절차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경기·인천으로 떠나지 않아야 하고, 소망을 하려고 시민들이 서울과 부산, 대전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 수조원의 투자금을 또 다시 다른 지역에 뺏겨서도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이해 당사자들 간 상생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mskim@kwangju.co.kr

무안 56%·함평 45%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광주연구원 여론조사...함평은 찬반 오차 범위 내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과 함평 주민 모두 군 공항 이전에 찬성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함평군은 찬반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 있고, 무안군은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18일 광주연구원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무안군에서는 반대 56.0%, 찬성 37.1%, 모름·무응답 6.9%로 나타났다.

전 연령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나 50대(45.1%)와 남성(44.2%)의 찬성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읍면별로는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망운면(45.8%)을 비롯해 무안읍(48.9%), 해제면(49.8%), 운남면(48.1%)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함평군은 반대 45.1%, 찬성 42.5%, 모름·무응답 12.4%였다. 남성(55.2%), 18~30세(65.1%)에

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함평읍(53.8%), 손불면(48.1%), 염다면(52.2%), 대동면(59.0%), 학교면(42.9%) 등 해안 지역을 포함한 5개 읍면에서는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다. 반대 이유로는 함평, 무안 모두 '소음 피해'(함평 65.8%·무안 61.0%)를 꼽았다. 찬성 이유는 '지역 발전'(함평 68.4%·무안 55.7%)이 가장 많았다.

군 공항 이전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도 함평(38.5%), 무안(40.9%) 주민 모두 '소음 영향 최소화'를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함평과 무안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00명씩, 모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방법은 유선전화 면접 50%, 자동응답 조사(ARS) 50%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4%p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전, 임시주총 김동철 사장 선임

김동철(68·사진) 전 국회의원이 한국전력 제 22대 사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전력은 18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동철 전 의원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을 거쳐 3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사장은 1961년 한전 주식회사 발족 후 62년 만

에 탄생한 첫 정치인 출신 최고경영자(CEO)다.

김 사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산업은행에서 근무했다. 김 사장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20대 총선까지 내리 4선을 하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사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김 사장은 취임 후 약 200조원의 부채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9분기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2021년 이후 쌓인 영업적자는 47조원이 넘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